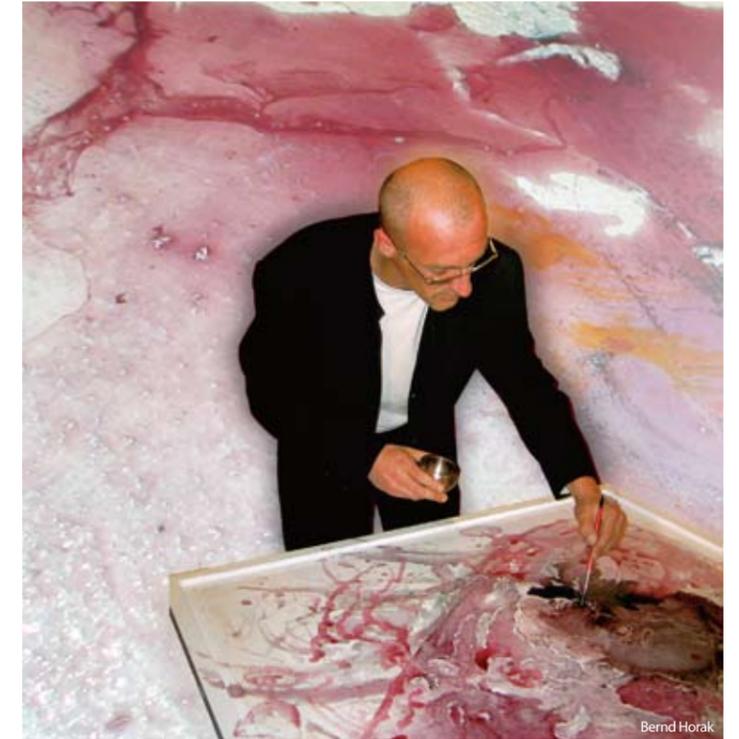




Krone : 비노렐 "왕관(Kr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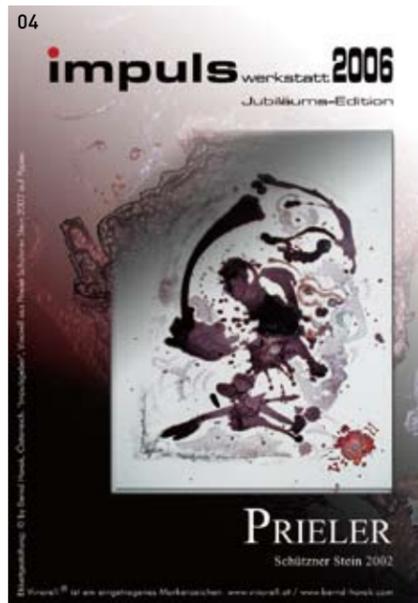
베른트 호락(Bernd Horak)의 비노렐(Vinorell) 와인을 순간에서 영원으로 승화시키는 그림



Bernd Horak

미국의 여류 화가 크리스티나로카시오(Christina LoCascio), 페루의 화가 루이스 카사노바 소롤라(Luis Casanova Sorolla), 독일의 화가 라이너헤스(Rainer Hess), 독일의 여류 화가 헬라 놀(Hella Nohl), 오스트리아의 화가 베른트 호락(Bernd Horak)은 와인을 물감 대용으로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 중에서 그림 자체의 성격에서만 아니라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동적이며 마케팅 부분까지 프로페셔널하게 관리하는 화가가 바로 베른트 호락이다. 인지(人智)를 위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과 비노렐을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설명하는 호락은 와인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을 비노렐이라고 부르며 이를 특허청에서 상표등록까지 하였다. 글_ 와인칼럼니스트 박찬준

1964년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Salzburg)에서 출생한 베른트 호락은 1980년대에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중의 하나인 외르크임멘도르프(Jörg Immendorf)와 오스트리아의 팝 아트와 유르치츠존호프(Jurtschitsch-Sonnhof)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그뤼베(GrüVe) 와인의 레이블 디자인으로 유명한 크리스티안루트비히아터제(Christian Ludwig Attersee)의 제자로 미술을 전공하였다. 호락의 미술은 초기 비엔나의 환상적 현실주의(Vienna Fantastic Realism)에 가까웠지만 1990년대에 성숙되어 애드-혹(Ad-hoc) 아트로 분류되고 있다.



비노렐에 의해서 와인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승화

한 번 와인을 사용해서 채색을 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노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 그리는 속도와 우연이라는 두 개의 요소라고 호락은 설명한다. 여기에 과감한 실험의 용기를 발휘하여 표현력이 강하고 순간성이 내재된 비노렐 작품을 만들게 된다. 이미 1990년대에 다양한 아트 퍼포먼스를 통해 오스트리아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호락은 와인과 관련된 행사에서 비노렐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비노렐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주제에 유머와 에로틱을 접목시키는 경우가 흔하며 의도된 무질서(Anarchie)가 그림을 지배하는데 이를 통하여 흥미로운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비노렐에 의해서 삶의 환희와 기호(嗜好)를 표현하고 적은 색 재료를 이용해 영원한 예술작품을 만들며 이를 통해 시간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호락은 비노렐에 의해서 와인을 순간에서 영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와인으로 그린 그림을 비노렐(Vinorell)로 상표등록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의 전시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한 호락이 와인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레드 와인의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약 3년간 실험을 하였다. 종이나 캔버스에 레드 와인으로 그림을 그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색이 많이 바래다고 설명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친구인 한 독일인화학자의 도움을 받아 종이나 캔버스의 표면을 사전에 가공, 처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레드 와인으로 그린 작품을 1년 정도 빛과 온도의 변화에 노출시킨 후에 전시 또는 판매하며 이를 통해 원래의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고 한다. 변색의 문제를 해결한 2006년도에 호락은 와인으로 그린 그림을 비노렐(Vinorell)이라고 정하고 이를 오스트리아의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다. 와인이란 뜻의 Vino와 수채화라는 의미를 가진 Aquarell을 합성하여 만든 이름이다.

1974년 빈티지의샤토라피트로칠드로비노렐을 그려 달라는 위탁을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하는 호락은 하나의 비노렐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와인의 양이 보통은 1/4병에서 반 병 정도 라고 한다. 남은 와인을 마시며 그림을 그릴 경우 영감에 도움이 되고 이와 같이 하나의 와인을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와인애호가인 자신에게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여름에는 화이트 와인을 즐기지만 보통은 레드 와인을 더 선호하는 호락은 오스트리아의 부르크렌란트에 있는 Arachon T-FX-T라는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퀴베아라콘(Cuvée Arachon)과 보르도의마고에서 생산되는 샤토프리외레 리신(Château Prieuré Lichine)을 가장 즐겨 마신다. 호락은 옐로우 톤을 얻기 위해서는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과 섞어서 비노렐을 그리지만 화이트 와인이 비노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와인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같은 레드 와인이라고 해도 포도품종의 종류, 와인의 산지, 숙성 정도에 따라 색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고 레드 와인을 그림에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 다른 톤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신기한 일도 아니다. 와인으로 그린 그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문제와 다양한 칼라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문제는 호락의 경우처럼 해결할 수 있고 후자의 문제는 다른 색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와인으로 그린 그림의 흥행 성공 여부는 결국 예술성일 것이다. 와인에 있어서의 퀄리티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지 않은 품질의 와인이 성공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생산자나 수입업자에게 효과 노릇을 할 수 있듯이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호락의 비노렐은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비노렐을 상표 등록한 것 이외에 비노렐 작품을 와인 포장 케이스, 와인 잔 등에서 다양하게 성공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01 Aufstieg : 비노렐 "상승(Aufstieg)"
 02 Freudigkeit : 비노렐 "환희(Freudigkeit)"
 03 Geschmack : 비노렐 "맛(Geschmack)"
 04 Label Design : 비노렐로 만든 와인 라벨들
 05 Logo : 비노렐(Vinorell) 로고
 06 Label Design : 비노렐로 만든 와인 라벨들